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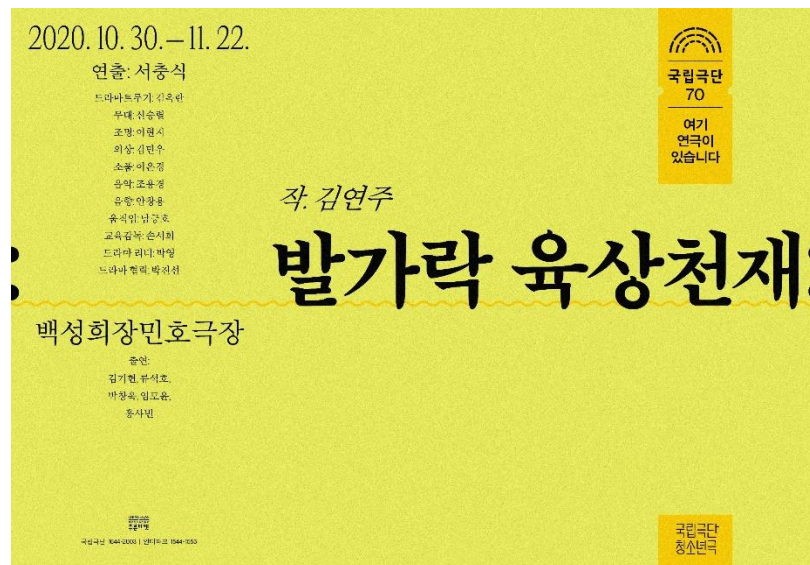
국립극단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
관람안내

2020.10.30.(금) – 11.22.(일)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 개요



가. 제목: 발가락 육상천재(작 김연주, 연출 서충식)

나. 날짜: 2020.10.30.(금) – 11.22.(일)/ 총 21회

다. 시간: 평일 19시 30분, 주말 15시, 화 쉽

단, 11.6.(금) 13시 30분, 11.12.(목) 16시 1회 공연

라. 예술가와의 대화: 11.6.(금) 공연 종료 후/ 1회

마. 소요시간: 공연 60분, 예술가와의 대화(11.6.) 40분 *변경될 수 있음

바.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사. 관람료: 전석 3만원

※ 만24세 이하 청소년 50%할인

자. 관람연령: 12세 이상(초등학교 5학년 이상)

※ 일부 장면에서 비속어 표현이 사용됩니다.

“나쁜 인어 XX. 널 구해주는게 아니었어.”

“뭐라고? 내가 너보다 더 빨라. 개XX야!” 등

차. 공연정보 상세보기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6936>

〈발가락 육상천재〉 공연소개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레슬링 시즌〉
연출가 서충식의 청소년극 신작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국립극단 청소년극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레슬링 시즌〉의 연출가 서충식이 새로운 청소년극으로 돌아온다. 〈발가락 육상천재〉는 신비한 설정과 톡톡 튀는 블랙 유머로 10대 초반 남자 청소년들의 남모를 고민과 갈등을 재치 있게 풀어낸다. 여기에 랩과 춤, 각종 놀이로 한바탕 소동이 펼쳐질 흥 넘치는 무대까지! 아쉽게도 극장에 찾아올 수 없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단 3번의 온라인 극장이 생중계된다. Coming soon.

월 봐, 열두 살 참 봐?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나보다 잘 달리는 친구에게 느끼는 열등감, 엄마 가게가 팔릴 위기 처한 집안 사정,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부풀렸던 말들을. 열두 살 육상부 소년들은 누군가 자신의 실체를 알까 두려워하며 오늘도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찌질함으로 세상을 경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에 선 소년들에게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자신만의 박자로 삶을 이끌어가는 ‘천재’의 생존법을 전한다.

“한쪽 발로 땅을 민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팍팍 나아가는 거야. 한 발씩 한 발씩.”

<발가락 육상천재> 공연소개

- 줄거리

바닷가 마을 자갈초등학교 육상부엔 독보적인 1등 호준, 아슬아슬 2등 상우, 만년 꼴찌 은수가 있다. 오늘도 모래 날리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훈련 중인데..

준수한 외모, 타고난 피지컬, 스포츠맨 정신까지 갖춘 전학생 정민이 학교 신기록과 함께 새로운 1등을 차지하며 평온하던 육상부를 뒤흔든다. 언제나 1등을 차지했던 호준은 자신이 인어에게 발가락을 잡아먹혔다며 더 이상 달리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잡으러 가보자 그 인어! 열두 살 소년들은 짙내 가득한 바다로 함께 향하는데...

- 리허설을 함께 관람한 학생들의 후기

“배우들이 굉장히 끼가 많은 것 같아요.”

“자갈초가 진짜 있나요?”

“꼭 놀러 가고 말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라 신기해요.”

작가, 연출 소개

작가 김연주

특유의 블랙유머와 감각적인 연극성으로 인간의 내면과 현실을 담백하지만, 과감하게 담아내는 작가.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를 졸업 후, 현재는 영상원에서 시나리오를 전공하고 있다.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에서 글을 쓰며 활동 중이다. 국립극단 청소년극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을 각색했고, <양질의 단백질(작/연출)>을 두산아트랩 무대에 선보였다.

연출 서충식

극단 주변인들 상임연출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교수

<레슬링 시즌><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로 전국 30여 곳의 관객을 만난 국립극단 청소년극 레퍼토리의 대표 연출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경쾌한 템포감과 리듬, 특유의 유머와 즉흥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가진 신체성과 정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새로운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에서는 바닷가 육상부 12살 소년들을 만나며 더욱 짙어진 날것의 페이스스를 전한다.

작가의 글

특별해지고 싶다. 잘나고 싶다. 뛰어나고 싶다.

누구나 한번쯤 가져왔을 욕망에서 출발했다. 시간이 흘러도 형태만 변할 뿐 이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하고 잘나고 뛰어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를 설명하기 쉽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무엇으로 나를 설명해야 할까?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말들이 필요해진다.

필요에 의해 뱉어낸 말들에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난장판이 된다. 난장판 속에서도 거짓과 진실 그 어느 것이라도 잡기 위해 손으로 한움큼씩 쥐어본다. 하지만 악을 올리듯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발가락 육상천재>는 뭐라도 잡기 위해 한움큼 쥐어보는 12살의 꿈지락거림에 대한 이야기다.

이 꿈지락거림은 평생 하게 될 사투다. 그 사투의 첫 스타트에 12살 남자 아이들이 서있다.



온라인 생중계 관람 및 사전예약 방법

가. 중계일시: 11.1.(일) 15시, 11.6.(금) 13시30분, 11.12.(목) 16시/ 총 3회

※ 예술가와의 대화: 11.6.(금) 13시30분 공연 종료 후

나. 소요시간: 공연시간 60분, 예술가와의 대화(11.6.) 40분

※ 생중계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중계매체: 국립극단 공식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user/ntckmaster

라. 온라인 생중계 사전예약 안내

▶혜택: 공연관람 가이드북 전달(10/30(금)까지 메일발송 예정)

▶신청방법: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제출 → 자동신청](#)

<https://forms.gle/x6iuX8GhWBq5Ly1JA>

▶신청기간: 10월 28일(수) 오후 6시까지

※참고: 청소년극 <영지> 온라인 생중계 진행사례(20년 6월)

- 전국 362개 학교, 약 3만5천명의 학생들이 함께 관람
- 관람 후기 (<영지> 고객만족도조사 발췌)

“이런 수준높은 연극을 집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연을 접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새로웠다.”

“아이들과 교실에서 함께 보고 싶은 연극.”

“온라인 생중계 너무 좋아요!! 지방에 살아 국립극단 연극을 잘 보러가지 못했는데 꼭 빠졌답니다

ㅏㅏ 너무 감사해요!!”

“너무신나고 재밌었어요!!”



문의 및 예매

▶ 티켓예매

- 개인예매: 국립극단 콜센터 **1644-2003** (평일 13-20시, 주말 10-17시/ 단 12-13시 점심시간),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 단체예매: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02-3279-2281** (평일 10-17시)

▶ 온라인 생중계: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02-3279-2281**, kte128@ntck.or.kr (평일 10-17시)

거리두기 객석제 운영 안내

국립극단 청소년극 <발가락 육상천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객석제]를 운영합니다.

STAGE

1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열	♿	♿																		
6열	W1	W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판매석 ■ 판매보류석

관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결정에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연장 내 조치

국립극단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장 전 체온측정, 문진표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평소보다 여유있게 공연장에 도착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극장 내 철저한 방역 및 위생 관리 실시
- 공연장 입장 및 공연 관람 시 관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극장 출입구 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 공연장 입장 시 체온 측정 의무화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 문진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 공연 관람 당일 문진 내용과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공연장 입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문진표 작성 안내

-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QR코드 스캔 후 문진표 작성
- 불가피하게 모바일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공연장 안내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진표 미작성시 객석 입장이 제한되며 허위 정보를 기재할 시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입장 불가 안내

- 최근 2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와 만난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안내받거나 가족 또는 동거인 중에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현재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호흡곤란,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 기타 확진 사례와 관계 부처의 지침에 따라 입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특이점이 있는 경우
공연장을 방문하지 마시고 국립극단(1644-200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연 관람 중 위와 같은 특이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있는 안내원 또는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